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이론태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4월, 5월 온통 천안한 사건에 이목이 쏠렸었는데, 6월 2일이 바로 투표일이다.

선거와 관련하여 이런 유머가 있다.

후보자 : “제가 당선되면 반드시 도로와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유권자 : “우리 마을에는 강이 있는데요?”

후보자 :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도 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선거철, 마음이 급하다 보면, 정당과 후보자는 ‘표가 되는 것이면’, 무슨 공약이나 낭발하게 마련이다.

이번 ‘6월 자체 선거’는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한다. 우선 한국 현대사 속에서, 연대는 달라지만, 4월은 ‘4월 혁명’이, 5월은 ‘광주민중항쟁’이, 6월은 ‘6월항쟁’이 일어난 달이다.

서양 근대문명 속에 영국의 ‘청교도혁

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대혁명’이 있었다면, 제3세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거의 유일하게 ‘4월 혁명’(1960년), ‘부마사태’(1979년), ‘5월 광주민중항쟁’(1980년), ‘6월항쟁’(1987년) 등이 성취시킨

## 4월과 5월, 6월 사이에서

‘20세기 한국 시민혁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서양의 3대 시민혁명은 모두 세금 문제에서 발생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주장을 “동의없이 세금 없다”라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세금을 걷으려 하는가?”,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인가?”, “누구에게 얼마를 할당할 것인가?”에 대해 인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는 절대 권력이 ‘그권력의 자의적인 낭용’을 통해 인민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 것은 어쩌면 필연

적인 것이었다.

성공한 시민혁명들은 이 ‘종세적 왕권’과 ‘근대 시민세력’의 대결에서 시민세력이 승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근대 시민 혁명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항권’이 모든 자유 중의 핵심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20세기 한국 시민혁명’을 통해 진정한 나라의 주권자로 자리매김하여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나라의 주인’이 되려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누구에게 얼마의

세금을 걷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들이 현행법에서 ‘위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도 ‘구체제의 유물’로 남아 있는 특정한 현행법이 잘못된 것이다.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법인 것이다.

함께 용신부는 이런 증언을 한 바 있다.

80년 5·17 전두환 군사쿠데타 직후 학부부의 조사를 받았을 때, 수사관들이 이렇

게 말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의 입에서 다시는 자유니, 민주주의니, 인권이나, 노동해방이나, 남북화해니, 남북평화통일이나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전제주의적 정치권력이 국민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한 것이 불과 30년 전의 일이다.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인권 유린이 ‘법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徑심할 필요가 있다.

시민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선거를 무슨 표식행위처럼 심드렁하게 치르느냐, 아니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들의 민생, 진정한 민주적 선진국가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기워내는 기회로 삼느냐 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더욱더 힘을 길러 가느냐, 아니면 민주주의적 의식과 제도를 퇴행시키느냐의 분수령이 되어왔다.

한국의 시민사회 역사는 아직 일천하다. 아니,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시민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는 힘든 과정에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이 2010년 봄날에 낮잠 자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 심명섭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어버이날, 아침 일찍 아이들이 가슴에 달아주는 한 송이 카네이션에 가슴 뭉클해 하며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카네이션을 바라보며,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생활에 웃 잡동이 잠시 시려운다. 옛 말에 자식 낳아 길러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시던 어른들의 말씀이 문득 생각난다. 아 이들에겐 고맙고 부모님에겐 한없이 죄송스럽고 후회스런 마음뿐이다.

생각해보면 부모자식 간의 인연이라

들인 나에게는 가슴을 애이는 슬픈 이별의 신고가 되버렸다. 이 같이 죽음이란 남아 있는 사람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준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셨던 부모님! 일상을 통해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정성과 노력은 나의 삶을 비옥하게 해준 배양액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뼈남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봉사를 의미했다.

생존해 계신다면 후회함이 없도록 지

## 아름답고도 슬픈 인연

는 것이 무엇일까? 오직 한번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서 동고동락하다가 슬픈 이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최근 천안합 46명 응사들을 떠나보내면서 머릿속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흔란스러웠기에 생활의 리듬까지 깨져 버렸다. 뒤틀어진 잡자리에 잡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곤히 자고 있는 집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건넛방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들도 이별을 해야 할 텐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엉뚱한 사색을 하며 혼자 가슴을 어루만지곤 한다.

이러한 심경을 주변의 친구들한테 풀어놓으면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서 이럴수록 아이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고 한다.

6년 전 그 무렵던 여름날 작고(어머님은 7년 전 작고)하신 아버님은 내가 태어나자 출생신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 출생신고를 받은 아들인 나는 49년 후에 나를 출생신고 하셨던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했다.

무정한 세월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

렇게 각기 다른 역할을 맡겼다. 아버지

에겐 큰 기쁨이었을 신고가, 그러나 아

극정으로 그동안 못한 효도라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이것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신 뒤 후회하지 않는 자식들이 되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석탄백탄 타는 데는 연기라도 나지 만 이내 마을 타는 땐 아무것도 보이질 않네”, “나설 제 고로움 다 잊으시고 가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높고 높은 하늘마다 말들 하자지만” 언제 불러 스러울 뿐이다. 부모의 아픔과 한이 담겨있는 줄도 모르고 바로 같은 생각을 한 나 자신이 미워진다.

오늘은 부모님 산소에 하얀 카네이션과 감사의 잔을 올려야겠다.

이글을 읽는 이들이여 부모님 살아계실 제 섬김을 다하는 5월이 되길 바란다.

〈전남대 학술정보운영과장·행정학 박사·수필문학가〉

기 고



## 송귀근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광주시의 지명이 ‘빛고을’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고려 태조 23년(940년)부터라고 하니 벌써 1000년도 더 된 것이다. 이 지명은 언젠가 광주가 ‘빛’으로 크게 각광받을 것을 예견한 것으로, 옛 선조의 선견지명은 가히 놀랄을 때이다.

빛고을이라는 이름 때문일까? 광주시는 10여 년 전부터 빛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광(光)산업을 광주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 그동안 육성

이 첨단항공이나 우주산업·통신·생활가전·의료·에너지, 나이가서는 현대문화예술의 핵심연출수단으로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광산업은 완성품이 아닌 부품소재이기 때문에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둘째는 광엑스포에 대한 관람객의 만족도이다. 광엑스포를 참관한 관람객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빛’이라는 독특한

## 광엑스포가 밝힌 광주

해온 광산업의 성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빛의 도시’로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광주시는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를 개최했으며, 9일로 그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지난 4월 2일 개막한 이 행사는 38일 동안 무려 148만명이 찾아온 광주의 미래를 공감했다.

광엑스포는 과거 이벤트성 축제와는 달리 지역대표산업인 광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별다른 산업적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광주가 첨단산업인 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이를 광엑스포로 까지 연계시킨 것은 광주시의 달라진 산업적 위상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엑스포가 막을 내린 이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해보기 이를 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광엑스포의 성공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평가는 자대는 광산업이 시민의 삶과 다른 삶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했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상당수 시민들은 광산업이 조명산업의 한 분야 정도로만 인식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광엑스포를 관람한 시민이라면 광산업

주제를 ‘재미’와 ‘교육’ 측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엑스포의 우수한 콘텐츠와 불거리가 관람객의 입을 통해 널리 알려져 목표관람객 130만 명을 초과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셋째, 광엑스포가 ‘광산업 도시’이자 ‘빛의 도시’인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여 주었느냐이다. 광엑스포 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한 많은 외국인과 다른 지역 사람들은 광주가 세계적인 광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엑스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쉽고 미흡한 점들도 물론 있었다. 행사운영 측면에서 개막 초기에 행사장 내 안내시스템이 미숙했던 점이나 콘텐츠 전시 측면에서 일부 전시관의 경우보다 입장료로 전시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광엑스포는 이제 끝났지만 광산업은

광주의 대표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번 광엑스포의 성공은 세계 3

대 광산업도시를 향해 질주하는 광주의 확실한 가속엔진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광주시가 산업분야에서도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생산도시로 거듭나는데 광산업이 큰 밀가루를 될 것이다.

〈광주시 행정부시장〉

## 온라인 쇼핑몰 ‘후기 댓글 아르바이트’ 사라져야

## 버스 정류장에 택배차량 주차 자제했으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는데 여기에 허위 정보를 올려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순진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자꾸 속이고 속는다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기피하게 되고 효용성을 잃게 되고 인터넷 밭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앞으로 악용하는 아르바이트 댓글, 제품 칭찬 아르바이트 후기는 정말 사라져야 하는 행위이다.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의 기능이나 질 등에 대해 궁금할 때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아래 상품의 질에 대해

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차량 정체의 주 원인이 된다.

무엇보다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의 불편이 있다. 버스가 원래 서야 하는 곳을 벗어나 정류장 활선 못 미쳐 멈춰서든지, 정류장을 지나서 서게 되니 허아 기야만 한다.

택배차들의 고충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많은 승객들이 겪는 불편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택배차는 정해진 곳에 정차하기 바란다. ▲임윤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시 설

## “영산강 살리기, 환경훼손” 경고 새겨 들어야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생식물의 서식처 환경 변화로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하천 준설과 보 건설로 고유어종이 멸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저작은 그동안 우려했던 4대강 사업의 환경·생태계 파괴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환경·생태계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7일 열린 한국물학술단체연합의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환경·생태계의 파괴를 걱정했다. 김창현 전북대학 교수는 영산강 사업으로 하천 서식처가 인위적으로 복원되면서 서식 조건이 단순화돼 수생식물 종류가 감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이승희 협남대 교수도 보 건설과 준설로 수심이 깊어질 경우 외래 어종이 증가하고 고유어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사실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 위기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보전 대책도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는 최근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지인 남한강 도리섬 일대에 대한 공사 중단과 함께 전면적인 생태계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실 가능성을 정부 부처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환경파괴 경고를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번 훼손된 생태계의 완전 복원은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파괴행위를 계속할 경우 중국에는 인간의 삶터까지 황폐화시키기 때문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밟아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F1 대회 ‘교통대란’ 특단의 대책 세워라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교통난으로 인해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니 걱정이 앞선다. 대회기간 중 23만여 명의 관람객에, 6만5000대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건설중인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10월 중순까지 개통이 어려워 교통대란에 따른 차질이 예상된다.

의산군은 수도권과 광주 방면의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무안군 일로읍 청하리~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간 7.2km의 우회도로를 임시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잊은 바와 강풍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대회 개막 전까지 개통이 불가능